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2016.7.21(목)
책 임 자	중소금융과장 신 진 창(02-2100-2990)	담 당 자	중소금융과 사무관 김 성 진(02-2100-2991)	
	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부장 최 성 환(02-3671-7350)		중소금융과 사무관 홍 상 준(02-2100-2993) 서울보증보험 상품개발팀장 손 명 룡(02-3671-7388)	

제목 :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잇돌 중금리 대출 운용상황 점검 - 출시 이후 2주간 동향 점검 및 격려

- ◆ 사잇돌 대출은 7.5일~7.20일간(12영업일) 9개 은행에서 총 3,163건 (323.8억원) 지원되어(일 평균 264건, 27억) 중신용 서민의 금융으로 해소에 기여
 - ◆ 대출자의 76.8%가 신용등급 4~7등급자이고 69.1%가 연소득 2~4천만원대로, 당초 정책취지와 같이 중신용 서민 중심 운용
 - ◆ 한편, 4개 지방은행* 및 저축은행권도 9월 중 사잇돌 대출을 출시 예정임에 따라 서민층의 금융접근성이 한층 더 제고될 전망
- * 부산, 경남, 대구, 광주은행

I 위원장 현장 방문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잇돌 중금리 대출 출시 2주가 지난 시점에서 NH농협은행 광화문 지점을 방문하여,
- 창구 직원 및 실제 대출 신청자와의 현장 면담 등을 통해 사잇돌 대출 운용 상황을 확인·점검하였음

< 현장 방문 개요 >

- * 일시 및 장소 : '16.7.21.(목) 9:30~10:00, NH 농협은행 광화문 지점
- * 주요 참석자(5명) : (금융위원회) 위원장, (중소금융국장, (금융회사) NH농협은행 은행장 및 부행장, 서울보증보험 사장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잇돌 대출로 지난 2주간 총 3,163명에게 324억원이 지원되는 등 비교적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
- 은행 사잇돌 대출 출시를 계기로 카드사,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중금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등,
- * 한국투자저축 '살만한 대출'(7월), 신한카드·SK텔레콤 중금리 상품공급 제휴(6월) 등
- 사잇돌 대출이 소 업권에서 중금리 신용대출 시장 활성화의 실질적인 촉매제로 작용하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사잇돌 대출은 금융개혁의 핵심성과이자 '따뜻한 금융'의 대표적 사례로서,
- 중·저신용 서민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정금리에 이용할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적인 방안임을 강조 [붙임1, 수혜사례 참고]
- 또한, 상품을 운용하는 은행들이 실제 현장에서 서민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음을 치하
- 한편, 은행들에게는 사잇돌 대출이 중신용 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세심한 노력을 당부
- 실제 창구에서 수요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운용·보완해 나가고,
- 시장원리에 따른 상품인만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들에게 대출요건·한도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설명을 요청
- 한편, 임종룡 위원장은 9월 중 사잇돌 대출이 4개 지방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에서도 추가 출시되는만큼,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한층 더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 * 부산, 경남, 대구, 광주은행

II 2주간 운용동향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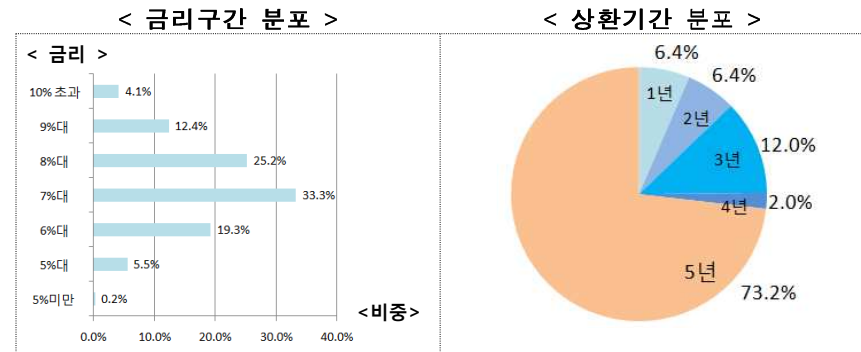
* 상품 출시 9개 은행의 7.5일~7.20일(12영업일)간 대출 실행 기준 집계

◆ **지난 2주간, 실제 신용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져**
중신용 서민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금리부담 완화에 기여

1. 운용 동향

- 7.5~7.20일간(12영업일) 9개 은행에서 총 3,163건(323.8억원) 지원
 - ⇒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일 평균 264건, 27억 수준으로 꾸준히 지원되는 등 비교적 빠르게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024만원이고, 대출 금리는 6~8%대가 77.8%, 상환기간은 다수가 5년 분할상환(73.2%) 선택
 - 판매채널별로는 오프라인(지점창구) 2,561건(81.0%), 온라인이 602건(19.0%)으로 나타남

※ 평균적인 사잇돌 대출자(1,000만원, 7%,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월 추정납입금은 198,012원



2. 대출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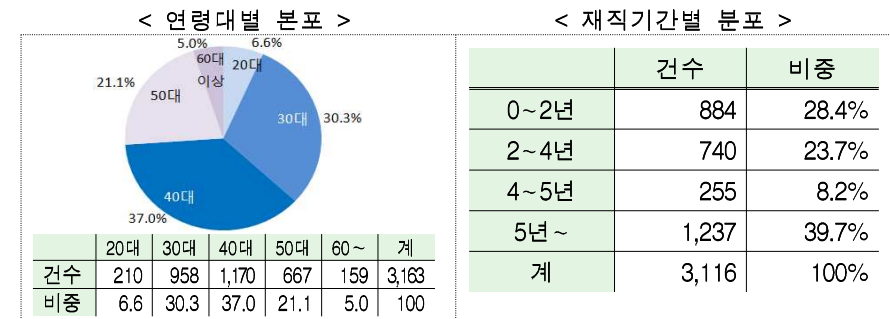
- (신용도·소득) 대출자 신용등급 4~7등급자가 대출건의 76.8%, 연소득 2~4천만원대 중위소득자가 69.1% 차지
 - * '15년 근로자 연평균소득 3,960만원(월 330만원)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 소득수준별 대출 비중 >

	~2천만	~3천만	~4천만	~5천만	5천만~	계
대출건수	245	994	717	475	732	3,163
비중	7.7%	31.4%	22.7%	15.0%	23.1%	100%

- 소득원별로는 근로소득자가 72.3%(2,287건), 사업소득자가 26.2%(829건), 연금소득자가 1.5%(47건) 순

- (연령·등) 생애주기 특성상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자금수요도 많은 30~40대 대출자가 상당수(67.3%)
 - 다만, 재직기간으로 보면 사회초년생(재직 2년 이하 28.4%)부터 장기 재직자(재직기간 5년 이상 39.7%) 까지 다양하게 포용하는 모습



3. 대출 이용 사례 (세부내용 [붙임2] 참고)

- 기존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했던 개인사업자, 급여소득자 등의 자금수요(생활자금·대환 등)에 부응하고, 이자부담을 경감
 - (사례 1) 가스배달 사업자 A씨(CB 4등급, 연소득 1,900만원)는 카드론 대출 등 1,600만원을 5년 만기 사잇돌 대출로 대환
 - 금리는 20% → 7.89%로, 총 이자비용은 766만원 → 320만원 (△57.4%)으로 감소

※ (실제 창구인터뷰 요지) 교육비, 임대료, 집월세, 이자비용 등으로 인해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저축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 (사례 2) 보험설계사 B씨(CB 4등급, 연소득 2,300만원)는 캐피탈 대출 1,800만원을 5년 만기 사잇돌 대출로 대환

- 금리는 11% → 6.69%로, 총 이자비용은 548만원 → 306만원 (△44.1%)으로 감소

※ (실제 창구인터뷰 요지) 사잇돌로 매월 부담이 확 줄게 되어, 결혼 자금 마련에 큰 보탬이 될 것 같다.

○ (사례 3) 식당을 운영하는 C씨(CB 4등급, 연소득 2,000만원)는 식당 리모델링 후 필요한 생활자금 2,000만원을 3년만기 사잇돌 대출로 마련

- C씨가 알아보았던 카드론 대비 금리는 12.4% → 6.72%로, 총 이자비용은 405만원 → 214만원(△47.2%)으로 감소

○ (사례 4) 중소기업에 10개월 재직한 사회초년생 D씨(CB 6등급, 연소득 2,190만원)는 가족 병원비 용도의 1,100만원을 5년만기 사잇돌 대출로 마련

- 추가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금리 7.81%로(총 이자 218만원) 자금 융통

4. 향후 계획

□ 향후 연체율 등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간 공동 리스크 관리 및 세부 미세 조정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 또한, 4개 지방은행(대구, 부산, 광주, 경남) 및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상품 출시도 차질없이 준비 추진

[붙임1] 사잇돌 출시 2주간 주요 수혜사례

[붙임2] 사잇돌 출시 2주간 추가 Q&A

붙임 1

사잇돌 중금리 대출 이용사례

[사례1] 영세 개인사업자의 대환사례

□ 가스배달사업을 영위중인 개인사업자로(CB 4등급, 연소득 : 1,900만원, 사업기간 3년) 기존 카드론 700만원, 고금리 대출 900만원을 대환할 1,600만원이 필요(만기 5년)

○ (기존 상품 내역)

① (카드론) 700만원, 연 20%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총 이자 = 약 236만원(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된 매월 납입액 중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부분의 합계)

② (고금리대출) 900만원, 연 20%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총 이자 = 약 530만원(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된 매월 납입액 중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부분의 합계)

→(카드론 + 고금리대출) 총 합산 이자 = 766만원

○ (사잇돌) 연 7.89%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 총 이자 = 약 320만원(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된 매월 납입액 중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부분의 합계)

⇒ 총 이자부담 약 446만원 감소(57.4% ↓)

※ (실제 창구 인터뷰 내용) 숨통이 트일거 같다. 애들 교육비, 사업장 임대료, 집월세 등 여기저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축할 생각은 엄두도 안났는데 매월 상환할 금융비용이 확 줄어서 이제는 저축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넓게 들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사례2】 대부업 대출의 대환사례

- 대학교 계약직사원 A씨(CB 5등급, 연소득 3,500만원)는 기존 대부업체 대출 이용금액 700만원을 사잇돌 대출로 대환
- (기존상품) 대부업체에서 연 39% 3년 만기 일시상환(12.4월~)(만기 : 7년, 잔여만기 3년)
→ 총 이자 = 약 820만원
 - (사잇돌) 연 9.08%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
→ 총 이자 = 약 100만원(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된 매월 납입액 중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부분의 합계)
- ⇒ 3년간 총 이자 부담 약 720만원 감소(87.8% ↓)

【사례3】 연금소득자의 대환사례

- 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연금 수령중인 Y씨(CB 5등급, 연금소득 3,300만원)는 既 카드론 이용금액 2,500만원 중 1,700만원을 사잇돌 중금리대출로 대환(만기 5년)
- (기존 상품) 카드론으로 연 11.83%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총 이자 = 약 511만원(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된 매월 납입액 중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부분의 합계)
 - (사잇돌) 연 6.75%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 총 이자 = 약 308만원(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된 매월 납입액 중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부분의 합계)
- ⇒ 5년간 총 이자 부담 약 203만원 감소(40% ↓)

【사례4】 사회초년생 자금 수요 충족

- 중소기업에 갓 취직한 사회초년생 P씨(CB등급 6등급, 재직기간 10개월, 연소득 2,190만원)는 가족 병원비 용도 1,100만원 대출 신청(만기 5년)
- * 10개월간 소득 1,830만원이나, 연환산 소득 2,190만원으로 적용
 - (기존 상품) 은행일반신용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존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을 既이용 중으로 추가 대출 어려움
 - (사잇돌) 연 7.81%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 총 이자 = 약 218만원(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된 매월 납입액 중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부분의 합계)
- ⇒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대신 사잇돌 대출 이용, 이자부담 경감

【사례5】 새희망홀씨 한도 초과자 자금 수요 충족

- 직장인 H씨(CB 7등급, 재직기간 7년, 연소득 2,300만원)는 기존 새희망홀씨 대출을 1년 5개월 동안 연체없이 성실히 상환 하던 중 생활자금 1,100만원 신청(만기 5년)
- (기존 상품) 은행 타 신용대출 기준 미충족, 기존 서민금융 상품(새희망홀씨)도 既이용중으로, 추가 대출가능액 산출 불가
 - (사잇돌) 연 6.62%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 총 이자 = 약 195만원(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된 매월 납입액 중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부분의 합계)
- ⇒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대신 사잇돌 대출 이용, 이자부담 경감

1. 은행권의 사잇돌 대출 출시로 저축은행권과 같은 제2금융권의 타격이 예상되는데?

- ☐ 현재 제2금융권 신용대출 규모* 대비 은행 사잇돌 대출의 공급 목표인 5천억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위축시킬 우려는 적음

* '16.5월 주요 제2금융권 신용대출잔액 : (여전) 35.2조, (저축) 10.2조, (상호) 36.4조

- ☐ 오히려, 은행의 사잇돌 대출이 소 금융권에게 시장원리에 기반한 중금리 대출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

- 실제로, 사잇돌 출시 발표 이후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관심이 고조

* KB카드 생활튼튼론(3월), 신한카드-SK텔레콤간 중금리 상품 공급제휴(6월) 등

- 저축은행 업권도 공동으로 9월 중 5천억원 규모의 보증보험 연계 대출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그밖에 회사별 중금리 대출 상품 출시도 확산*되는 추세

* SBI저축은행 '사이다대출'('15.12월), 한투저축은행 '살만한 대출'('16.7월) 등

※ 한편, 중금리 시장 활성화의 궁극적 목적은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 완화에 있으며,

- 이에 따라, 업권에 구애됨 없이 '잘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요

2. 당초 목표한 5,000억원 소진 이후 추가 공급계획이 있는지?

- ☐ 서울보증보험·은행권은 중신용자 대상 신용평가 정보 부족 등을 감안하여 우선 5,000억 규모의 보증보험 연계 사잇돌 대출 공급에 합의하였음

- 참여 금융회사들은 추후의 대출운용 성과, 은행별 중신용자 평가 체계 고도화 추이 등을 보아가며, 추가 공급 여부를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음

3. 부실을 상생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의 손실에 따른 국민 부담이 있지는 않은지?

- ☐ 서울보증보험은 중신용자의 위험을 반영한 보험료 책정, 은행과의 손실분담구조* 등을 통해 손실 위험을 적정 관리해 나갈 계획

*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150%를 초과할시 은행이 추가보험료 납부

- ① 서울보증보험 자체적으로 '중신용자 전용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여 리스크가 관리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책정하고,
- ② 은행과 연체율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승인요건을 미세조정하는 등 공동의 리스크 관리를 추진할 계획

- ☐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사잇돌 대출 운용을 통해 자체 평가모형을 고도화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의 기회로도 활용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사잇돌 대출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되어 대출거절 사례가 많거나 한도가 너무 낮게 산출되는 것 아닌지?

- ☐ 사잇돌 대출은 은행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중·저신용자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
 -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의 소득, 소득대비 부채수준, 최근 연체여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신청자가 원하는 금액 대비 대출 승인한도가 낮은 경우 등이 발생 가능
- ☐ 서울보증보험과 참여은행은 상품의 연체율 추이, 운용성과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조건·대출한도 등의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